



김민아 기자

본선 경쟁에 돌입한 대선

- 왜 대선 구도가 이토록 우경화했는가?
- 불품없는 '적폐청산'에서도 뒷걸음치는 문재인
- 우파와 기업주들의 새 아이콘 안철수

4~5면

알렉스 캘리니코프 칼럼
트럼프의 군사
행보가 노리는 것

2면

기아차 집행부의
비정규직 노조
떼어내기 노력

6면

나치의 부상
프랑스는 어디로

7면

광고

청년·학생 모여라
분노의 촛불 세대를 위한
토론 광장 4월 29일(토)~30일(일)

7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의 전쟁 놀이는 국내 정치용 성격이 강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시리아에서는 크루즈 미사일을 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초대형 폭탄을 날리고, 한반도에서는 잠재적인 핵대치 상태다. 미국의 해외 전쟁을 비판하던 도널드 트럼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국가의 외교 정책에 국내 정치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학계의 오랜 논쟁거리다. 그러나 이 경우에 관한 한 고삐를 쥔 쪽은 국내 정치인 듯하다.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를 매우 좋지 않게 시작했다. 연방법원은 그의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두 번이나 중단시켰다. 공화당 극우파 의원들은 오바마케어 대체하려는 그의 시도를 막았다. 백악관도 내부 갈등으로 마비됐다. 이 과정에서 덤터기를 쓴 것은 트럼프의 “수석 전략가”인 인종차별적 포퓰리스트 스티븐 배넌이다. 트럼프는 배넌을 강등하고,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보도했다. “트럼프에게 하나 위안이 된 것은 시리아에 미사일 59발을 발사한 결정이었다. ... 트럼프는 국가안보보좌관 H R 맥마스터가 주도했던 미사일 발사 과정에 만족했다. 서로 싸우던 내각이 화해하고 한데 모여며 백악관의 좀 더 전통적인 방식에 가깝게 전문성을 발휘한 것이다.”

최고통수권자

대통령의 친구 토마스 배력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트럼프는 취임 이후 내가 아는 한 가장 좋은 상황에 있다. 트럼프는 자신감을 찾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일과 팀에 대해서 감을 잡았다. ... 내 생각에 트럼프는 이제서야 자신이 최고통수권자라고 느끼는 것 같다.” 트럼프가 13일 언론에 한 말은 이를 뒷받침한다. “내 일은 내 군대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고로 훌륭한 군대를 갖고 있고, 그 군대는 평소처럼 필요한 일을 해냈다. 우리는 군대에 완전한 권한을 부여했고, 우리의 군대는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트럼프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를 겨냥해 [초대형 폭탄] GBU-43 모아브(MOAB) 사용하도록 허가한 이유를 설명하며 한 말이다. <포린 폴리시>는 이렇게 논평했다. “트럼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현장의 미군 사령관들이 목표를 타격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재량권을 허용했다. 소규모 부대 이동이나 때때로는 개별 목표물



“모든 선택 사항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신물 나는 미국의 험박과 무력 시위, DMZ를 방문 중인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

에 대해서도 통제했던 오바마 행정부가 불만이었던 군 지도부에게 이는 기꺼운 변화다.”

비록 트럼프가 전시 대통령 놀이를 즐기고 있을지 몰라도 미국 바깥의 엄혹한 정치 현실은 여전하다. 미군이 초대형 폭탄을 투하한 것은 미국과 아프간의 폭두각시 정권이 16년 넘게 전쟁을 벌이는데도 탈레반을 물리치지는 커녕, ISIS에 충성을 다짐하는 전사들까지 탈레반에 가세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 때문이다.

시리아 순항 미사일 공격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데서는 발을 뺐다. 아마도 맥마스터와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를 필두로 한 트럼프의 장군들이 아사드 정권 제거 시도가 실패할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베트남과 이라크에서 실패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한반도는 더 큰 문제다. 북한 정권은 지정학적 고립과 경제적 취약성을 만회하려고 핵무기와 이를 탑재할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려 한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능력을 갖지 못하게 막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한반도 일대에서 무력 시위를 하러 오고 있는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 호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 남한의 승리가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승리의 대가는 매우 클 것이다. 북한은 엄청난 양의 재래식 미사일과 대포로 남한의 수도 서울을 겨누고 있다. 서울은 [수도권] 인구 2천5백만의 세계적인 도시로 한반도를 분단하는 휴전선 바로 근처에 위치한다.

중국 문제도 있다. 중국은 (점점 마지못해 하지만) 북한의 주요 후원국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지 않으면 자신이 선제 공격하겠다고 베이징을 압박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고삐를 죄게끔 하려 한다. 중국은 북한 원유 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김정은을 제거하려 했을 때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지도 않다.

트럼프는 자신의 장군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마치 세계의 꼭대기에 있는 것같이 느낄지도 모르겠다. 전임 대통령들도 그렇게 느꼈었다. 조지 W 부시는 스스로 “칼자루를 쥔 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부시의 미국은 사상 최악의 군사적 패배를 겪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미국의 힘의 한계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550호 / 번역 최병현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프랑스 대선을 계기로 살펴보는
무슬림 혐오, 세속주의,
그리고 프랑스 좌파
- ★ 시리아군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이집트 혁명가들 성명서
시리아 독재자 알아사드는 퇴진하라!
시리아 민중에 대한 전쟁을 중단하라
- ★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 ★ 공무원 금요일 조기 퇴근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
빛 좋은 개살구
- ★ 국제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
한국의 노동현실을 돌아보며

새로 나왔습니다

이론과 실천의 통일
마르크스21
19호 2017년 3~4월 13,000원



구입 문의: 도서출판 책갈피
02-2265-6354, chaekgalpi.com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_____

[선택] 휴대전화번호 _____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근혜 기소: 부패한 통치자가 피고석에 서게 된다

김문성

4월 17일 드디어 검찰이 박근혜를 기소했다. 구치소에 들어가서도 죄를 부인하기 바쁘더니, 결국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박근혜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구속되고, 피고석에까지 서게 된 것은 거대한 정권 퇴진 운동의 결과다.

핵심 죄목인 뇌물죄 혐의 대상(반값 거나 요구한 것을 더한) 총액이 특검이 규명한 4백33억 원에서 5백92억 원으로 늘었다. 특검이 삼성 뭇까지 밝혀낸 것에 더해, 검찰이 롯데와 SK의 1백59억 원 뭇도 밝혀낸 것이다. 추가된 뇌물 혐의 중 70억 원을 실제로 전달한 롯데 총수 신동빈도 뇌물죄로 기소됐다.

박근혜 혐의 중 핵심인 뇌물과 공무상 비밀 누설(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보내 검토하게 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다. 이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되면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 신동빈 등은 중형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 등은 뇌물죄 혐의를 한사코 부인하고 있다. 각자의 재판에서 최순실은 삼성이 '선의'로 정유라를 지원했다고 말하고, 이재용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뇌물죄 혐의를 피하려는 의도다.

최순실은 동일한 기업 모금이 어떻게 강요일 수도 있고, 뇌물일 수도 있냐고 항변했지만, 한 뇌물이 선의일 수도 있고, 강요일 수도 있다는 게 더 웃기는 말 아닌가?

박근혜의 중형과 재벌 총수 구속 문제가 걸려 있어 앞으로 이들 일당들에 대한 재판은 만만찮은 공방 속에서 진행될 듯하다.



박근혜 구속, 대중 투쟁의 결과물이다

이 밖에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권이나 사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질식시키려 공작해 온 것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장에 포함됐다. 박영수 특검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블랙리스트 통치 문제는 민주주의를 해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흑색선전팀("알파팀")을 꾸려서 운영해 왔다는 것이 최근 폭로됐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앞에서 '폭식 퍼포먼스'를 한 짐승 같은 자들의 배후에 김기춘, 조윤선, 전경련 등이

있었다는 의혹도 이미 제기됐고, 일부는 특검·검찰에서 확인됐다.

사실 우익단체들의 배후에 국가기관과 기업인들이 있다는 의혹은 새누리당 정권 9년 내내 제기돼 온 것이다. 이미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에 국가기관의 총체적 개입에 의한 부정 선거 덕분이었다는 폭로가 있었고, 항의 운동으로도 이어졌다.

따라서 이 문제는 더 엄중히 다뤄져야 하고, 추가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 재판에서도 뇌물과 블랙리스트 통치 같은 범죄에서 명령권자로서 박근혜

의 책임을 무겁게 따져야 한다.

대중이 박근혜 퇴진 투쟁에 연인원 1천7백만 명이나 나선 것은, 특권을 챙기려고 보통 사람들을 핍박하는 정권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한 이 염원은 재판 결과에 반영되어야 한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선에서 가장 선호하는 슬로건으로 "정의로운 대통령"(35.6퍼센트)이 "준비된 대통령"(20.9퍼센트), "미래 대통령"(16.6퍼센트)을 제치고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재벌 십수 곳(총 53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냈는데도, 정작 기소된 재벌 총수가 돌박에 안 된다는 건 정의 실현에 더한층의 투쟁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박근혜-최순실-김기춘-안종범으로 이어지는 권력 농단 부패 범죄의 또 다른 축이었던 우병우가 구속도 안 되고, 허술하게 기소된 것도 마찬가지다.

틀림없이 고위층의 비리 정보를 보함용으로 확보해 놓은 것이 우병우가 검찰의 칼을 피해 간 비결이었을 것이다. 그는 검사 시절 노무현 비리를 수사했고, 의심 많은 박근혜 아래서 고위층 사찰을 담당하는 민정수석 등을 거쳤다.

박근혜 일당의 재판은 또다시 보통 사람들과 권력층 사이의 세력관계를 시험할 것이다. 검찰과 특검이 뇌물죄 혐의를 일부 밝혀내어 기소까지 한 것은 거대한 퇴진 운동이 아래로부터 가한 압력 때문이었다. 결국 정의는 이미 증명됐듯이 노동자 계급이 싸워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싸움은 권력 장악을 지향해야 한다.

2017년 개정 중보

추천 소책자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김승주 지음, 3,500원, 132쪽.
구입 문의 : 02-2271-2395
mail@workersolidarity.org



엮은이 서평 |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현장 보고와 분석》

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과 광장의 생생한 목소리

최영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

박근혜 퇴진 운동은 역대 한국 시위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일대 사건이었다. 연인원 1천6백만 명이 참가했고 1백만 명 규모 시위가 무려 여섯 차례나 벌어졌다. 단일 사안으로 대규모 집회가 5개월 동안 이어진 것도 최초였다. 촛불 집회에서 발언한 사람 수만 해도 1천여 명이었고 이들이 울분을 토하는 정점도 다양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사드 배치 반대, 성과연봉제 반대, 의료 민영화 반대, 백남기 특검 실시,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이것은 이 운동의 배경에 지난 4년간 누적된 불만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음을 반영한다.

박근혜 퇴진 운동은 정치적 의미도 컸다. 1960년 4월혁명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은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민중의 힘에 밀려 중도하차 하는 일을 난생 처음 경험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현장 보고와 분석》은 이 중요한 정치적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생하게 기록했다.

우선, 21차례 열린 촛불 집회를 꼼꼼하게 기록했다. 광장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연대의 장면은 특히 생생하다. 페미니스트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 중에 만난 언론노조 대열을 향해 “박근혜를 탄핵하고 공영방송 쟁취하자”고 외치자 언론 노동자들이 “박근혜를 탄핵하고 여성해방 쟁취하자”고 화답하는 훈훈한 장면은 다른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례다. 참가자들의 자유 발언

도 많이 실려 있다.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의 가슴 절절한 발언을 읽다 보면 어느새 눈물이 앞을 가리고, “촛불은 바람 불면 옮겨 붙는다”, “염병하네” 등 답답한 속을 뽐내어 주는 ‘사이다’ 발언, 재치 있고도 분명하게 그때그때 운동의 향방을 제시하는 발언은 다시 읽어도 통쾌하다.

알려지지 않은 퇴진행동 내부 논쟁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은 학자들처럼 관조적 태도에서 사태를 해석하지 않고 퇴진 운동 한복판에서 운동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 한, 살아 움직이는 인간(세력)들의 노력과 투쟁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퇴진 운동 5개월 동안 수많은 쟁점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즉각 퇴진이

나 질서 있는 퇴진이나, 즉각 퇴진이나 탄핵이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에 주류 야당을 참여시킬 것인가, 황교안 권한대행 퇴진을 요구할 것인가, 청와대를 목표로 거리 행진을 하는 게 효과적인가, 노동 정점을 부각하는 노동자 발언이 필요한가, 우익의 준동에 맞불을 놔야 하는가 등. 이 책은 퇴진 운동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런 논쟁을

숨김없이 다루고 있다. 그리고 운동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전략·전술을 제시하려 애쓴다.

이 책은 퇴진 운동이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진했는지,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봄으로써 박근혜 정권 적폐의 청산을 위한 앞으로의 투쟁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최영준·최일봉 엮음
592쪽 | 18,000원 | 책갈피

기아차 김성락 집행부는 원하청 노조 분리 총투표 중단하라

장재형 화성지회장은 투표 관리를 거부해야 한다

박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의 김성락 집행부가 원하청 노조를 분리하는 조합원 투표(총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이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와 독자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의 왜곡과 달리, 이번 사태는 '정규직 대 비정규직' 대립 구도가 아니라 기아차지부 집행부가 정규직·비정규직 조합원 모두를 향해 벌이는 노골적인 퇴행이다. 실제로 현장에선 정규직·비정규직 활동가 조직들이 입장을 발표하고 대의원·활동가 연서명을 받는 등 노조 분리 투표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김성락 집행부가 막무가내로 노조 분리 투표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 자신이 체결한 신규채용 합의를 지켜 내어 협상 파트너인 사측을 향해 위신을 세우려는 것이다. 신규채용 합의는 사측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일부만 선별적으로 신입사원으로 뽑는다. 그간의 체불임금·근속·공정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합의를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웠다. 집행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앞장서 이끌지는 못할 망정 손톱 밑의 가시로 여기고 있다. 역설이게도, 김성락 집행부가 노조 분리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정규직-비정규직 단일 노조의 필요성을 잘 보여 준다.

둘째, 집행부의 투쟁 회피에 대한 책임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을 관료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기아차 조합원들은 낮은 임금인상률, 오리무중

통상임금, 누더기 8+8 교대제 합의, 비정규직 임금 삭감, 신규채용 합의와 강제 전환배치 등으로 불만이 터질까지 차 왔다. 김성락 집행부는 이런 불만이 왜 생겼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기는커녕, 화성공장의 사내하청분회가 무리한 요구와 투쟁으로 "노동조합의 발전을 가로막았다"며 "노동조합의 규율은 철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화성 분회장을 징계하는 안건을 지부 운영위에 상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규율은 그저 입 닥치고 지도부의 통제에 따르라는 게 아니다. 민주적 토론에 기초해 단결해서 투쟁하자는 취지다. 이 점에 비춰 보면, 노동조합 규율을 위반한 것은 김성락 집행부 자신이다. 지난해 말 조합원 총투표까지 거친 '박근혜 퇴진 민주노총 파업'에 불참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경우만 해도 법원 판결(불법파견 인정)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측이 문제의 원인인데도, 김성락 집행부는 오히려 비정규직의 투쟁을 비난함으로써 착취자를 편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조합의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간질

경제 불황으로 수익성이 줄면서 사측의 공격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 노조 분리는 사측에게만 이로운 뿐 노동자들에게는 해롭다. 물론 노조가 나뉘어 있어도 투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커다란 조직력을 가진 기아차지부에서 분리되면 단일 노조의 일부인 때보다 조건을 방어하기도, 지금의 조합원 수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



노조 분리는 노동자 단결에 불리하다

자들의 처지가 열악해지면 정규직의 조건도 후퇴 압박을 받기가 더 쉬워진다. '비정규직을 몰아낸 노동귀족'이라는 비난 속에 정규직의 요구와 투쟁도 연대를 얻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노조 분리는 사측이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각개격파하기 딱 좋은 토양을 제공한다. 사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놓고, 또 그 내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신입사원이라는 이유로, 청소·식당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근무태도가 불량한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갈기갈기 찢어 각개격파하려 한다. 이런 이간질 공격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게 노동운동의 핵심 과제인 이유다.

최근 김성락 지부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당선한 화성공장의 지회 집행부가 노조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투표의 목적 자체가 노조 분리에 있으므로 투표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화성지회 집행부가 그저 노조 분리 반대만 외친다면,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면피 행위일 뿐이다.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김성락 집행부를 배출한 활동가 조직인 '금속노동자의 힘'도 논란 끝에 투표 반대 입장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 동지들도 화성·소하리·광주 공장에서 노조의 집행권을 갖고 있는 만큼, 자신의 집행부가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 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해야 진정한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기아차지부의 전직 위원장들과 일부 활동가들은 노조 분리 투표를 막기 위해 대의원대회를 열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분리를 막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김성락 집행부가 어떻게든 노조 분리를 관철하려는 상황에서, 그 결과가 불확실한 방법에 의존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 사면초가 상황으로 물린 김성락 집행부가 총투표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투표라는 형식 절차를 구체적 맥락에서 떼어 내어, 무조건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양 착각해선 안 된다. 며칠 전

터키에서는 속임수와 비리, 협박 등으로 잠철된 국민투표를 통해 에르도안 대통령이 권력을 더한층 자기 손에 집중시켰다. (터키 좌파는 투표 보이콧을 주장했지만 확실한 탄압과 마녀사냥으로 실패했다.)

한편, 적잖은 활동가들은 노조 분리 시도를 비판하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외치는 '전원 정규직 전환' 요구나 투쟁이 과도하다는 생각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러나 보수적 법원조차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데다, 삼성의 이재용 구속으로 정몽구의 불법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 정서'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 요구가 과도하고 현실성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몽구만 기쁘게 할 것이다.

박근혜가 파면·구속된 지금의 정세(사회 세력관계)는 노동자 투쟁에 유리하다. 지금의 기회를 이용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단결해서 단호하게 김성락 집행부의 노조 분리 총회를 막아 내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진시켜 나가야 한다.

4·22 청소 노동자 행진

최저임금 1만 원, 고용 안정 보장하라

4월 22일 오후 3시 보신각에서 “꽃만 피면 봄인가? 우리 권리가 꽃피야 진짜 봄! 5회 청소 노동자 행진 — 청소 노동자의 봄: 청춘”(이하 청소 노동자 행진)이 진행됐다. 이 날 전국에서 온 청소 노동자 1천여 명이 최저임금 1만 원, 고용 안정, 인권 보장, 노조할 권리, 직접 고용, 차별 없는 일터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 여섯 가지 요구는 청소 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2011년 홍익대 청소·경비·시설 관리 노동자들이 49일간 투쟁한 끝에 승리한 이후, 여러 대학 청소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쟁취해 왔다. 청소 노동자들의 조직은 대학을 넘어 병원,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우리 주위의 청소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최저시급을 겨우 웃도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노조 활동을 한다고 탄압받기도 한다.

인천공항 외곽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은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화장실을 갈 수 없다. 화장실에 가면 관리자가 시간을 재고, 오래 걸리면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한다. 명백한 인권 유린이다.

한 고대의료원 청소 노동자는 “병원 청소 노동자들은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을 치울 때 제대로 된 보호 장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열악한 노동 조건을 토로했다.

지난 4월 12일 원청인 경북대병원 사측은 고용 안정, 식대 1천 원 등을 요구하며 돌입한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당연한 것을 요구했는데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고대의료원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에서는 용역회사가 복수노조를 이용해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진짜 사장인 대학·병원 당국은 뒤에 숨어 이런 상황을 방관하거나 일조하고 있다. 청소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경비·주차·시설관리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번 청소 노동자 행진은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린 뒤 전국의 청소 노동자들이 서울에 결집하는 집회



“꽃만 피면 봄인가? 우리 권리가 꽃피야 진짜 봄!”

다. 대선을 앞두고 청소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이슈화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올해 2월 28일부터 4일간 본관 점거 농성을 벌여 승리한 민주노총 이대분회 경비 노동자들의 사례는 유리한 정세 속에서 단호하게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들은 서경지부 소속 분회 중 최초로 퇴직금과 실업금

여를 쟁취했다.

청소 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 청소 노동자 행진에 참가하자.

연은정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 본지 웹사이트에서 관련 기사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 하라’도 읽어 보세요.

프랑스 대선

멜랑송의 부상이 보여 주는
잠재력과 과제

프랑스 대선이 초접전이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좌파적 사회민주주의자 장뤼크 멜랑송의 급부상이다.

1차 투표를 엿새 남긴 4월 17일 여론조사들을 보면, 나치인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중도 에마누엘 마크롱, 보수 공화당의 프랑수아 피용과 함께 멜랑송은 불과 6퍼센트 이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네 명 가운데 누구든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썼다.

멜랑송은 TV 토론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지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러나 더 주되게는 수십 년간 보수 공화당과 사회당이 지배해 온 프랑스 정치에 대한 환멸을 좌파적으로 파고든 덕분이다. 그는 대자본가를 비판하고, 평화를 주장하고, 인종차별을 비난하고, 지중해에서 익사한 난민들에게 연민을 나타낸다.

특히, '그리스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도 열어 놔야 한다'며 유럽연합과의 '관계 재설정'을 말하거나, 지난해 통과된 노동개악 철회, 소득 40만 유로(약 4억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층에 90퍼센트 과세, 나토 탈퇴 등을 주장하는 것에 지배계급들은 치를 떤다.

지지율은 낮지만 반자본주의신당(NPA)의 필리프 푸투도 이번 선거에서 계급에 기초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멜랑송의 부상은 나치 국민전선이 부상하는 것에 대한 좌파적 반발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동안 멜랑송이 수차례 소송에 휘말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르펜을 꾸준히 나치라고 비판해 온 것도 높이 살 만하다. 또한 지난해 노동법 개악에 맞선 파업에서 패배한 노동자 계급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약점도 있는데, 바로 "애국자"임을 강조하며 좌파적 애국주의를 표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세장에서 프랑스 국기를 나눠 주고 프랑스 국가(라 마르세예즈)를 부르기도 한다.

이런 애국주의는 그가 공산당과 동맹하면서 생긴 일이다. 스페인의 포데모스처럼 멜랑송도 '좌파 대 우파'라는 구도와 거리를 두면서 "정화(淨化, dégagisme)"를 표방한다. 지난 대선에서 인터내셔널가를 부르던 것과는 큰 차이가 난다.

‘프랑스적 가치’라는 혼란

이처럼, 멜랑송이 애국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프랑스 공산당이 '프랑스의



사진 출처: GUE/NGF

전통적 가치'를 추앙하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은 1789년 프랑스 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것과 프랑스 국가에 충성하는 것을 혼동하는 데서 비롯한다.

문제는 이처럼 '프랑스적 가치'를 추앙하는 것이 무슬림 혐오에 맞서는 데 심각한 약점이 된다는 것이다. 국민전선은 무슬림들이 바로 그 '프랑스의 가치'를 위협한다는 거짓 논리로 좌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마비시키며 성장할 수 있었다. 국민전선에 맞서는 것은 오늘날 프랑스 좌파의 최대 과제이다.

한편 멜랑송은 프랑스가 난민을 더 많이 받아들이 수 있다고도 말하고, 또 무슬림 혐오 조처에 대체로 반대해 왔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근거는 인종차별적 조처들이 "현실의 진정한 쟁점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정면 승부를 피하는 모양새다.

더욱이 멜랑송은 오늘날 프랑스가 이슬람주의 위협에 시달린다고거나, 모든 프랑스인이 공화주의 가치에 동화돼야 한다는 등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전제 자체에 도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말은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 이주 노동자들에 연민을 나타내면서도 "프랑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프랑스에서 아랍어를 쓰는 것을 문제 삼기도 한다.

멜랑송이 결선에 진출한다면 프랑스는 물론이고 전 세계 좌파와 선진적 노동자들을 고무할 것이다. 유럽연합이 긴축을 강요하고 난민을 배척하는 정책들에 대한 좌파적 비판도 더한층 강해질 것이다.

멜랑송의 급부상은 나치 국민전선의 성장에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을 좌파적 대안으로 이끌 잠재력이 상당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동시에 민족주의가 아니라 계급에 기초한 대안을 제시할 급진적 좌파의 필요성도 강하게 보여 준다.

김종환

관련 기사 안내

프랑스 대선을 계기로 살펴보는
무슬림 혐오, 세속주의, 프랑스 좌파

우익이 혐오를 부추긴다고 무슬림에 대한 적개심이 자동으로 싹트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프랑스 좌파들이, 우파가 '세속주의'를 빌미 삼아 무슬림

을 공격하는 논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학생 모여라!

분노의 촛불 세대를 위한

토론평광장

4월 29일(토)~30일(일)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신세계관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맞은편)

주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주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이대모임

분노의 촛불 세대를 위한 사이다 토론!
저들의 특혜인생, 우리의 최저인생에 도전하는 토론!
광장의 주인이었던 내가 직접 참여하는 평등하고 공정한 청중 토론!



이호중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유가족 추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조직노동자운동팀장	최영준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	박병우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민주노총 대협실장	유재희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이화여대분회 분회장
--	------------------------------------	---------------------------------------	-------------------------	--------------------------------------	--------------------------------------



이유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전 하나 줄이기》저자	이준식 《거리에서 국정교과서를 문다》와 《쟁점 한국사: 근대편》의 공저자	이정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 강사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박설 《조선업 위기와 구조조정 —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공저자	김영익 《노동자 연대》 기자,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본 오늘의 동아시아 불안정과 한반도》저자
--	--	----------------------------------	--------------------------	--	--



이현주 《노동자 연대》 여성 문제 담당 기자	김인식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김문성 《노동자 연대》 기자	장호중 《노동자 연대》 기자
------------------------------------	--------------------------	---------------------------	---------------------------

시간표

4월 29일(토)

10:00 ~ 11: 30	세월호 참사, 거짓말과 진실 이호중
11:50 ~ 13:20 (선택 강연)	《자본론》 출간 150년 —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의미 있는가? 이정구 트럼프, 아베, 시진핑, 푸틴 — 열강들의 각축장이 돼 가는 한반도 김영익
14:40 ~ 16:10 (선택 강연)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 자본주의와 여성 차별 이현주 왜 이토록 불평등한가? — 마르크스주의와 계급 김하영
16:30 ~ 18:30	박근혜 퇴진 운동의 교훈 최영준, 권영국, 박병우

4월 30일(일)

10:00 ~ 11: 30	국정 역사교과서 비판 — 바로 보는 한국 현대사 이준식
11:50 ~ 13:20 (선택 강연)	세월호 참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국가는 무엇인가? 김문성 왜 핵발전은 나쁜 에너지인가? 이유진, 장호중
14:40 ~ 16:10 (선택 강연)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 우리가 모르는 민주주의 김인식 비정규직의 서러운 현실과 저항 유재희, 박설
16:30 ~ 18:00	러시아혁명과 '역사적 사회주의' — 마르크스주의의 의의가 있는가? 최일봉

참가 신청 : workerssolidarity.org/forum2017

참가신청 및 문의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il@workerssolidarity.org

참가비 이틀 30,000원 하루 17,000원
대학생·청년실업자 이틀 20,000원 하루 12,000원
청소년 이틀 10,000원 하루 6,000원

참가비 납부 계좌 국민은행 017001-04-089255 / 농협 100037-56-119794 (예금주 백은진)
후원 계좌: 국민은행 206001-04-033205 (예금주 백은진)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이정원

4월 22일 청소·삼성전자서비스·제조업 사내하청 등 다양한 부문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함께 시위와 행진을 벌인다.

이 노동자들은 하는 일은 서로 다르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비정규직 비중이 조금씩 주는 추세 속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 왔다. 2016년 기준 대기업 간접고용 노동자만 1백55만 명이고, 건설 일용직과 중소영세업체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2백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민주노총). 노동자 10명 중 1명, 비정규 노동자 4명 중 1명 꼴인 셈이다.

간접고용은 사용자가 필요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 용역, 하도급, 외주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이다. 제조·통신·유통·건설 대기업을 비롯한 광범한 민간 사업, 그리고 공공기관, 대학, 교육기관, 병원 등 공공부분 전반에 걸쳐 있다. 사용자들은 간접고용이 비용 절감과 고용 조정, 노동법·산재·4대보험 등 각종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데 유리해 그 비율을 늘려왔다.

정부는 법률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파견법 제정은 간접고용의 물꼬를 뒀고, 2006년 노무현 정부의 기간제법 제정과 파견법 개악으로 간접고용은 더 급격히 증가했다. 파견법 개악으로 파견 가능 업무가 확대됐고,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불법파견일 경우 원청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과태료를 물면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다. 사용자들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고 기간제 대신 간접고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사용자들은 파견 범위, 파견 기간 확대 등을 계속 요구했다. 철저히 친기업 정부였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파견을 확대하고, 알량한 파견법의 제한마저 피하려고 사용돼 온 가짜 도급을 합법화하는 정책을 밀



차별에 가만히 있지 않고 조직하고 싸워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

어붙였다. 파견법 개악은 박근혜 노동개혁의 핵심 가운데 한 가지였다. 번번이 저항에 부딪혀 이를 관철하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정부로 말하자면 간접고용을 확산해 온 주범이기도 하다. 1998년 외환위기로 공공부분에서 대대적으로 인력을 감축했는데, 이 와중에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양산됐다. 심지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에도 간접고용은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가 공공부분에서 비용 절감과 경영효율화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2015년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는 11만 6천여 명에 이른다(이 통계는 민간위탁 노동자가 제외돼 실제 규모보다 과소집계 됐다). 대표적으로 인천공항공사는 노동자의 85퍼센트가 간접고용이고, 철도공사는 8천 2백여 명이 간접고용이다.

열악한 처우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통상 1년 또는 2년마다 고용을 갱신해야 해 주기적

으로 고용 불안을 겪는다. 사실 상당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상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하지만 사용자들은 온갖 핏수를 이용해 이를 외면한다. 이정미 의원은 2015년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사업체에 직접고용 지시를 한 3천 3백79명 중 지시 이행률이 42.5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기업주들은 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해도 법률상의 미비점을 이용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다. 판결 후에도 현대·기아차에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이 계속된 이유다. 노동자들의 저항과 사회적 지탄 분위기 때문에 때로 사용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수용하기도 하지만, 이때조차 일부만 신규 채용하거나 별도 직군을 만들어 차별하는 핏수를 부린다.

임금 수준도 매우 열악하다. 파견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백65만 원, 용역 노동자는 1백45만 원에 그치고 있다(김유선). 심지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도 상당수다. 2011년 파견

노동자의 31.4퍼센트, 용역 노동자의 43.4퍼센트가 최저임금 미달이었다. 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19.4퍼센트인 것과 견주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절대적인 임금억도 문제지만, 삼성전자서비스나 통신·케이블방송 노동자들처럼 '건당 수수료' 임금 체계 탓에 엄청난 실적 경쟁과 고위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릴 뿐 아니라 작업 중 목숨을 잃거나 중대 재해를 당할 위험도 더 높다. 불산 유출로 삼성전자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실명, SK브로드밴드 도급 기사 전신주 추락 사망, 삼성전자서비스 에어컨 설치 기사 추락 사망,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기사 참사 등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대표적인 사건만 열거해도 많다.

간접고용이 증가하면서 산재 발생은 더 늘고 있다. 예컨대 2012년 1천여 명에서 2014년 6천여 명까지 간접고용 노동자가 늘어난 한국수력원

자력에서는 안전 사고가 급증했고 비정규직의 산재처리 빈도가 정규직의 9.3배에 이른다.

사용자들은 안전 시설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하청 노동자들을 위험한 작업에 내몰아 온 것이다.

노동자들의 저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조직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이를 통해 천대와 멸시에 주눅 든 약자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며 상당한 잠재력을 가졌음을 증명해 보였다. 임금을 올리고, 사용자들의 비인간적 대우를 바꾸는 등 중요한 처우 개선을 이뤘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비정규직 문제와 간접고용 문제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비호 속에 사용자들은 악랄하게 대응해 왔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면, 원청이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정부도 이를 허용한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처우 개선에 나서면 기업주들은 업체 폐업, 계약 해지 등으로 노조원들을 해고해 고통을 주는 식으로 보복해 왔다. 서경지부 여러 대학 청소노동자들, 삼성전자서비스, 방송·케이블 노조, 현대중공업, 만도 헬라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노동3권을 제약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오도록 하고, 무엇보다 원청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만들고, 파견법도 폐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퇴진 운동 속에서 자신감을 얻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비정규직이 투쟁에 나설 때 기존의 조직된 노조가 투쟁에 연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로 세계를 분석합니다.

- ▶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신문
- ▶ 차별과 억압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쟁적인 신문
- ▶ 국제적 저항과 운동 소식을 좌파적 관점에서 전하는 신문
- ▶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신문
- ▶ 독자들이 판매자이자 기고자이고 후원자인 신문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구독기간 ☐ 1년 (26개 호) 50,000원 ☐ 2년 (52개 호) 100,000원 ☐ 2년 이상 ()년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보내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 ws@wspaper.org	